

국제표준화 회의동향

국제회의의 참가 종합보고서 요약
CCITT SG X 회의

1992. 5. 18 ~ 5. 27, 스위스 제네바

종합보고서(CT-92-04)의 목차

- 일반사항
- 일정 및 활동사항
- 주요 회의 내용
- 참석소감
- 부록
 - '92. 5월 SG X 문서목록표
 - 각국별 참가자 리스트 및 주요문서

* 이 글은 일정기준이상의 국제회의 참가단이 국제회의 참석후 작성·배포토록 되어있는('92년부터 시행) 국제회의참가 종합보고서의 요약소개로서 이 지면을 활용해 널리 전파 보급코저 합니다.

** 종합보고서의 세부내용 또는 전부를 입수하고자 하실 분은 협회 사무국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종합보고서는 총 200부 발간되어 해당 연구위원회 및 관련 단체에 배포됩니다.

1. 회의 개요

- 회의명 : Plenary of Study Group X
- 회의 기간 : '92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 회의장소 : ITU 회의실(제네바, 스위스)
- 관련 Letter No. : CCITT Collective-letter No.7/X
- 국내 참가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최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준경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연구원
안재홍	한국통신기술협회	4급

2. 회의 주요 의제

1) 개회, 폐회등의 총회에서 주요 의제

- 각 WP들의 새로운 연구 과제 준비
- 타 SG들간의 Liaison 발송
- 타 표준 기관들(IEEE, ISO등)과의 긴밀한 협조

2) WP별 주요 의제

- WP 1(MML 부문)
 - HMI의 명세 기법 개선

○ 통신 네트워크 관리의 지원을 위한 HMI의 명세

- WP 2(METKA 및 SW Quality 부문)

○ METKA : “네트워크 Off-line 관리 및 서비스” 과제

○ SW Quality : “Z.400 권고안” 과제

- WP 3(SDL 부문)

○ MSC(Message Sequence Chart)

○ 새로운 정형적 서술 기법

○ 시험 및 검증

- WP 4(CHILL 부문)

○ Z.200에서 실수-모드 첨가 및 약-가시성 기능의 제거

○ Z.200의 concurrency 및 piece-wise 프로그래밍 개념의 보완 정립

○ CHILL 사용자 매뉴얼의 보완

○ 객체지향 CHILL의 자료 조사 및 검토

3. 회의 주요 결과

1) 개회, 폐회등의 총회에서 주요 회의 결과

- SG IX에서 SG X에 할당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

- SG X 총회에 제출된 권고안의

최종 정리

- 다음 회기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질의를 준비
- Interim 회의(16-20 Nov.)를 위한 참조 항목 및 과제 준비

2) WP별 주요 회의결과

- WP 1(MML 부문)

다음 회기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HMI 명세의 개선된 기법
- 자료지향 HMI의 표현을 위한 명세 기법
- 자료지향 HMI 명세 기법의 응용

- WP 2(METKA 및 SW Quality 부문)

○ METKA : 네트워크 Off-line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개념

○ SW Quality : 교환기 부문을 위한 SW 구조 및 형태

- WP 3(SDL 부문)

○ SDL 정의 보완 및 다른 정형적 명세 기법과의 연계활동

○ MSC의 확장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 통신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모델링 기법 연구

○ 정형적 서술의 명세와 검증을 위한 시험

- WP 4(CHILL 부문)

다음 회기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region 및 concurrency primitive들의 개선
- piecewise 프로그래밍의 개선
- generic 기능 첨가
- 객체지향 기능 첨가
- overloading 기능 첨가
- ASN.1과 CHILL의 조화

4. 차기회의 일정

- 회의명 : Interim Meeting

- 회의기간 : '92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 회의 장소 및 회의개최 기관명 : 스위스 제네바 ITU 회의실(ITU사무국)

- 회의 주요안건 : 다음 회기의 과제 계획 작성, 기고문 토의 및 타 WP와 Joint 회의

5. 기타

1) 국내 Document 관련사항

없음.

2) 국내 관련사항

— 각국의 CHILL 컴파일러 개발 상황

○ 일본의 NTT사에서 CHILL 컴파일러를 개발하여 4개 업체에다 이를 배포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제에의 비용을 한국과 달리 그 4개업체가 지급하고 있어서 새로운 과제(즉 객체지향 개념을 포함한 CHILL 컴파일러 개발)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인원이 과제 책임자이며 front-end 및 run-time 시스템 개발자인 Mr. Sato, back-end 및 sysbolic sequential debugger 개발자인 Mr. Ohmori 그리고 그 두사람을 지원해 주는 경력 약 2년 정도의 개발자 2명으로 총 4명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일본의 CHILL 컴파일러 소스는 Ada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식성때문에 C로 변환중이라고 하였다. OS는 UNIX를 사용하고 있으며, host로는 sun3 sun4를 target 코드로는 일본에서 제작한 chip 코드를 생산한다고 하였다. 그들이 현재 개발한 CHILL의 확장 개념은 객체지향적 관점에서 본다면 모드정의속의 자료 구조에 상속성(inheritance)을 포함한 것이다. 이를 구현하는데 전문가 1명이 1년안에 개발했다고 하였다.

○ 브라질의 Telebra사는 CHILL

컴파일러가 아니라 CHILL 변환기로서 CHILL을 GNU C로 변환하여 컴파일한다고 하였다. OS는 UNIX를 사용하고 있으며, host는 sun 계열 및 vax, hp 기종을 사용하며 target 코드로는 Intel 계열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처음 개발 단계에는 9명이었으나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다. 이번에 참석한 사람은 run-time 시스템 및 symbolic sequential debugger를 담당하는 개발자였다.

○ 독일 Siemens사에서는 모든 개발 도구를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OS도 자체 OS를 사용하고 있음을 들었다. 현재 CHILL 및 OO-CHILL 개발자들이 약 23명정도의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막강한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 또한 OO-CHILL 환경을 만드는데 약 5명이 1년 동안에 만들 수 있었고, 현재 이를 ISDN 구축에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다. 개인적으로 siemens사의 OO-CHILL이 Ada-9X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이태리 Alcatel사도 OO-CHILL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국적 기업으로써 각기 다른 4개의 컴파일러가 있다고 들었다. 이 회사의 컴파일러 개발자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다.